

# 産銀 20조 매각해 中企 지원

### 인수위, 업무보고 뭉 주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재경부·건교부·통일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차기 정부의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투기 대책, 대북 지원 방향, 국민연금 등 연금 개혁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편, 당초 15일께로 예정됐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기개편 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곽승준 기획조정본부 위원은 이날 "산업은행 민영화는 민간자금을 이끌어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MB노믹스의 중요한 예"라면서 "산은 민영화로 얻어지는 20조원으로 KIF(Korea Investment Fund)를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 인수위 강만수 경제1본부 간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며 "골프리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중부세와 양도세 완화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현 제도를 바탕으로 1년 정도 관찰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해 1년을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간사는 경제성장률 7% 달성과 관련, "현재 여건으로서 당장 어

렵지만 규제 완화와 기업분위기를 개선하면 6% 전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현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은 수도권

### 재경부 "중부·양도세 완화 1년 지켜볼 것"

### 건교부 "기업·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

### 통일부 "북핵 진전 맞춰 경험 이행돼야"

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지만 새정부는 지방 광역 경제권 활성화로 높여서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인수위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 우선 이달 중 지

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키로 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지에서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급리를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되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통일부=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남북협력사업 관련, 인도주의적 사업 등은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타당성 없는 사업은 재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북핵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 경험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북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유지하지만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사업,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치, 조선분야 투자협력 등은 2월까지 현지조사와 재검토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험사업들은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급리를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재정경제부 업무보고가 열린 7일 서울 삼성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재경부 관계자들이 강만수 인수위 경제1본부 간사(아래 가운데)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李당선인 "이렇게 새다니" 진노

### "정보 유출자 반드시 색출" 지시

"정보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하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이 당선인은 최근 자신에게 보고되는 내부 자료나 극비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진노하면서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이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안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이 당선인께서 엄청 화가 났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냐"며 측근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서실의 다른 관계자도 "비서실이 발칵 뒤집혔다"면서 "범인을 찾

나라고 비서실 전체가 뒤송송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비서실은 현재 정보 라인 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 직원들과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통화기록 등을 조회해도 좋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조사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여러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가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지 불과 20분 만에 일부 방송에 유출된 데 대해 "방송이 저보다도 더 잘 아는 것 같다. 저는 보고도 못 받았다"고 황당해 하면서 "기초 논의과정에서 있는

것이 새 나간 건데 경위를 물어보니까 현재 (정보유출자들) 찾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보안유지와 관련, 측근들 스스로도 '몰조심'을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범 케이스에 걸릴 경우 가혹한 '패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아예 '입'을 닫고 나선 것. 이 당선인과 전날 밤 심야 회의를 마치고 귀가한 측근 의원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 놓은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당선인은 총리와 각료 인선에 대해서도 극도의 보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초기 구상 단계에서 모든 게 새 나가면서 자칫 큰 그림을 망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공적연금 동시에 메스

### 인수위, 연금개혁 TF 설치... 노령·국민연금 통합 운영 계획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새 정부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TF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한 다음, 4월 총선 뒤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나누어 있는 연금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묶어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당선인 측은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 작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를 통해 이 당선인 측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

꾸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대부분의 노인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지급하고, 대신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주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제도를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최고 8만4천 원의 노령연금을 주도록 설계돼 있으나, 이 당선인 측은 이것만으로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인수위, 청와대 '대수술'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청와대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청와대 조직이 비대하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며 "작지만 강한 청와대 구성에 따라 실장이나 수석 등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직접 일을

행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청와대 조직 개편은 총리실 기능조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우선 정책실, 비서실, 안보실 3개 '실' 체제로 구성된 청와대 조직 중 정책실과 안보실을 폐지 내지 기능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정책실이 폐지되면 비서실은 정책실의 기능을 일부 흡수하면서 청와대 전체를 조율하는 권한을 갖게 돼 이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기

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실 밑에 설치된 8개 수석 중에서도 사회정책수석,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혁신관리수석 등이 개편대상으로 거론되고, 각각 수석 밑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슬림화와 효율화 원칙에 따라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핵심업무 이외에는 상당부분 총리실을 비롯한 다른 부처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경숙 "수능 10일째 정리"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등급제 문제와 관련, "10일경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기초 논의과정이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이 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당초 수능등급제 폐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 초 종합적인 교육정책 개편 방안을 보고하라고 교육부측에 요청했으나 10일째 업무보고를 통해 수능등급제 존폐 여부가 자연스럽게 큰 틀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인수위 "3월 환경단체와 대운하 공동탐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오는 3월경 환경단체 인사들과 함께 대운하를 공동탐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2월 대토론회와 3월 공동탐사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대운하에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면 이르면 오는 6월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 같은 대운하 사업 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담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7

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운하 사업이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단체 중立的 대운하 반대론자들과 함께 대운하 구간을 공동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운하 주변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환경전문가들이 탐사팀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공동탐사 시기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오는 3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남쪽 구간만도 12개 노선에 걸쳐 장장 2천

100km에 이르기 때문에 공동탐사를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구간별로 다수의 탐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다음달 초 대운하 사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학자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운하 대토론회를 갖기로 하는 등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인수위는 대토론회와 대운하 공동탐사 등을 통해 여론이 환기되면 오는 6월 특별법안을 처리, 사업을 더욱 가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개강 **1월 7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국비무료 교육보험가입근로자 수급도함급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마도성원 진원빌딩 4F)  
첨단점 ☎ 971-0002 (메이트빌딩 4F 광주은행 4F)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매월초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현금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 노동부직접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선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협시점 ☎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겨울방학 대특강!!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 직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사직	복합직	토목직	검출직	물리화
-----	-----	-----	-----	-----	-----	-----	-----	-----	-----	-----	-----	-----	-----	-----

※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월 7일 주·야 (휴일)반 모집 (합계 세 알)**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시험의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협시점 (중요고시 무등반)  
www.mdgoal.co.kr ☎ 222-4560

**새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출연 감사진!

개강 **1월 7일 (주·야)**  
현재 강의중 (매일 무료청강 환영)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국비무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교육비환급  
현재접수중 ☎ 529-8111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제)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기위 ● 선배협력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기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동성동 서구점 및 광주은행 마로빌 도영빌딩  
북구점 ☎ 529-8111  
▶ 개말동 구시영사거리(중흥동)대일빌딩 옆 경승빌딩 6층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급 공무원 합격대특강**

개강 **2월 1일**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원생) **개강 2월 1일**  
9급 이론박수반 (2개월원생) **전직종 첫진도**

사전에약원수중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홍문 북구청앞  
(062) 252-0252